보도시점 2024. 10. 14.(월) 배포 시 배포 2024. 10. 14.(월)

수입 벌집꿀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중

- 수입 벌집꿀은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등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음
- 수입 벌집꿀은 가축질병 전파 우려 낮아 다른나라도 가축질병 검역안함

〈 보도 주요 내용 〉

10월 14일(월) 국민일보「수입 벌집꿀 검역 허술 세밀한 잔류농약 검사를」 기사에서 "❶ 외국에서 식품이나 식물이 국경을 넘을 때는 검사를 까다롭게 해야 하는데, 벌집꿀은 하지 않는다. ❷ 벌집이 수입된다는 건 균이 증식할 수 있는 것, 관리 없이 외국에서 꿀이 들어오면 국내에 새로운 질병이 생길 수 있다. "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〈농림축산식품부 설명〉

❶ 수입 벌집꿀은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등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.

벌집꿀 등의 식품을 수입하려면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해야하며, 제품 기준 및 규격 검사, 표시기준·허위표시 등의 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, 국내 유통 중이거나 수입되는 벌집꿀은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약처 고시)」에 따라 전화당, 탄소동위원소 비율* 등 성분 규격과 잔류물질(살충제 등)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

* 전화당(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), 탄소동위원소 비율: 벌꿀의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항목

최근 3년간('22~'24.9) 벌집꿀은 총 52건(39톤)이 수입되었으며,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전량 반송·폐기되었습니다.

식약처는 수입 벌집꿀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 여부,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, 해외 위해정보나 부적합 정보 등이 있는 경우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겠습니다.

❷ 질병 전파 우려는 낮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축질병 검역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.

*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검역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

다만, 향후 수입이 확대되는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집 꿀의 검역 대상 지정에 대해 전문가·이해관계자 등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	책임자	과 장	이연섭 (044-201-2331)
		담당자	사무관	곽상익 (044-201-2335)
<협조>	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관리과	책임자	과 장	손영욱 (043-719-2201)
		담당자	사무관	유행일 (043-719-2210)
<협조>	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희중 (044-201-2071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형 (044-201-2072)
<협조>	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동윤 (044-201-2311)
		담당자	사무관	김철기 (044-201-231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